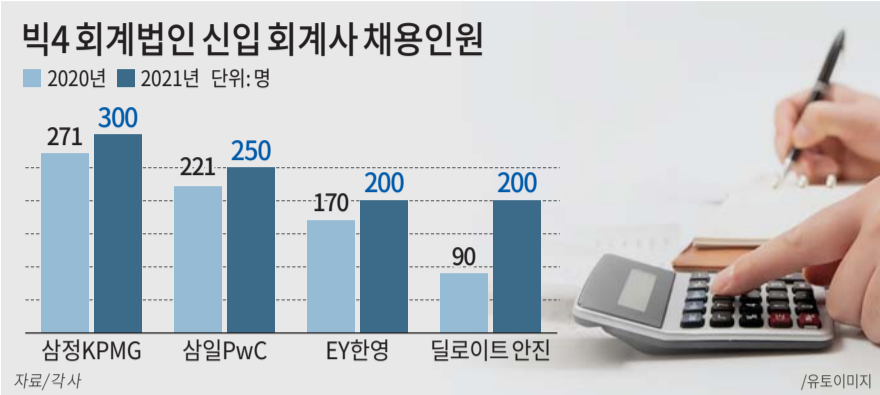


코로나發 업무 급증... 회계법인 빅4, 올 채용 26% 늘렸다

선발 예정인원 총 950명 집계
삼정 300명, 삼일 250명 등
채용 확대에 '미지정 사태' 줄 듯



올해 빅(BIG)4회계법인(삼정KPMG·삼일PwC·EY한영·딜로이트안진)이 신입 공인회계사(CPA) 채용 인원을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경영자문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업무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빅4회계법인의 올해 신입 회계사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752명)보다 26.3% 늘어난 총 9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채용 인원은 ▲삼정KPMG 300명 ▲삼일PwC 250명 ▲EY한영 200명 ▲딜로이트

안진 200명이다.

지난해에는 빅4 회계법인이 코로나19 여파 등의 이유로 국내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입 회계사 채용 규모를 줄인 바 있다.

삼정은 빅4 중 가장 큰 규모로 채용을 진행한다. 현재 조기 입사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접수를 진행 중이다. 7월

~8월 두달간 사전면접과 추가면접을 거쳐 9월 입사 예정이다.

삼정 관계자는 "지난 6년간 1984명의 신입 회계사를 채용해 업계 최대 채용을 실시했다"며 "경력직 회계사도 상시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삼일은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서류 합격자를 대상

으로 1차 온라인 실무진 면접, 2차 리더십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면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진은 오는 12일부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10여개 국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비대면 채용 설명회를 시작한다. 9월 2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고, 이후 면접전형, 인성검사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은 기졸업자의 경우 9월, 졸업예정자는 12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이처럼 빅4의 채용 규모 확대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미지정 사태'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회계사 총합격자는 1100명으로 빅4 채용인원 950명을 제외한 150명이 중견·중소 회계법인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회계업계는 여전히 회계사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품질 저하와 저가수입 등이 그 이유다. 2022년 신입 회계사 선발 인원은 오는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취임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빅4 평균 퇴사율이 20%를 넘을 수도 있다. 상당수가 퇴사 후 중견 회계법인이나 새롭게 뜨는 업종들을 향해 찾아간다"며 "1차 시험 지원자가 지난해 대비 24% 증가하는 등 응시자가 늘어(금융당국) 선발 인원을 늘리자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회계사 합격자 수는 오버플로우(overflow)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50대 26일부터 모더나, 高3 화이자 접종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공개

55~59세 12일 사전예약, 26일 접종
50~54세 19일 예약, 내달 9일 접종
고3학생·교직원들 19~30일 접종

50대는 오는 26일부터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겐 화이자 백신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일 이와 같은 '7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7월 예방접종은 6월까지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으로 시작하며, 고령층 접종을 마무리한 후에는 50대 일반 순서 접종을 시작한다.

우선, 6월 접종 대상자 중 사전예약 급증으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한 60~74

세 19만7000여명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제한됐던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11만여명은 5일부터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로 백신을 접종한다. 60~74세 사전예약자 중 건강 상태 등 사유로 예약을 취소했거나 접종이 연기된 미접종자 10만여명 역시 12~17일 사전 예약을 통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50대는 오는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우선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352만4000여명은 12~17일 사전 예약을 통해 26일 접종을 시작한다. 50~54세(1967~1971년 출생자) 390만여명은 19일부터 24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다음 달 9일 접종을 시작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

직원 64만여명은 학교와 사전 예약을 거쳐 19~30일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외 대입 수험생 15만명은 이달 말 사전예약 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은 8월 중 화이자로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교직원 등과 아동 복지·돌봄시설 종사자 약 112만6000명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화이자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사전 예약은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입영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도 추가로 진행된다. 대상은 7~9월 입영 예정자 약 7만명이다. 철강·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체 중 상시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코로나19 백신 7월 예방접종 일정

①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접종대상	예약기간	접종기간	백신종류	접종장소
60~74세 등(초과예약자)	6.23~30	7월5~17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6.28~30	7월5~17일	화이자	위탁의료기관
60~74세(예약취소·접종연기자)	7.12~17	7월26~31일	모더나	위탁의료기관

②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대상	예약기간	접종기간	백신종류	접종장소
고3 및 고교 교직원	학교별 조율	7월19~30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교육·보육 종사자(돌봄 인력)	7.14~17	7월28일~8월7일	화이자	위탁의료기관
기타 대입수험생	7월 말	8월 중	화이자	위탁의료기관

③ 입영장병

대상	예약기간	접종기간	백신종류	접종장소
7~9월 중 입영 예정(7만명)	7월12~	7월12~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에 입영통지서 등을 제시, 대상자 확인·등록 후 접종센터에서 예약

④ 50대 연령층

대상	예약기간	접종기간	백신종류	접종장소
55~59세(62~66년생)	7.12~17	7월26일~	모더나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50~59세(62~71년생)	7.19~24*	8월9일~	모더나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자료: 질병관리청

*백신 도입에 따라 1~2주 간격으로 순차적 진행 /뉴스스 그래픽

은 부속 의원을 통해 모더나 백신을 자체 접종한다. 접종 시기는 일반 국민 접종 시작 나이에 맞춰 7월 말 50대부터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도 7월 말이나 8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 등은 학원강사 등 고위험군 자율 접

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은 50대 이상에서만 권고하기로 했다. 30~49세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세경기자 seilee@

“그린자산 비중 30%→70% 늘릴 것”

» 1면 'SK이노, 그린기업 전환'서 계속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수주 잔고가 현재 1테라와트+α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이는 배터리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2017년 5월 당시 60GWh보다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한화로 환산 시 130조 원을 넘는다.

또, 매출은 내년 말 월 판매량 기준 세계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추정되고, 생산 규모도 2030년 500GWh 이상 될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기준 올해 흑자를 달성해 2025년까지 2조5천억 원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K이노베이션은 폐플라스틱을 100% 재활용하고,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SK종합화학은 2027년 기준 국내외에서 생산

하는 플라스틱 100%를 연간 250만 톤 이상 재활용한다. 또한 사용량 저감 및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 비중을 100% 달성하는 계획을 추진기로 했다.

넷 제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한 탈 탄소 전략을 마련했다. ▲아시아 기업 최초 Scope 1, 2, 3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 감축 목표의 구체적 제시 ▲파리기후협약의 1.5도 온도 상승 시나리오보다 빠른 감축으로 2050년 이전 넷 제로 달성 ▲석유화학 사업의 매각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친환경 투자를 통한 넷 제로 달성 지향 등이다.

김준 사장은 "ESG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사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파이낸셜 스토리를 완성할 것"이라며 "현재 30% 수준인 그린 자산 비중을 70%까지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